

고싸움놀이 흥 돋우고 신명난 판소리 한마당

내일 5·18민주광장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
광주국악방송 ‘남도마실’ 프로그램 공개방송

광주와 전남은 역사와 문화적인 면에 있어 한뿌리로 동질성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남도’로 지칭되는 말에는 ‘따로 또 같이’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문화로 하나 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제3회 광주·전남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로 하나 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문화주간에는 고싸움놀이축제, 국악방송 연계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제3회 광주·전남문화주간’ 개막식은 지난 10월 21일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서 열렸고, 11일은 광주 주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2017 광주 고싸움 놀이 축제’. 국가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광주 고싸움 놀이는 방문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도의 흥을 북돋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시부터는 젊은 줄꾼 남창동 씨가 줄타기를 선보인다. 고싸움놀이축제 현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국악방송 ‘남도마실’ 프로그램이 ‘용호쌍박’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말바우아집’으로 유명한 배우 지정남 씨 진행으로 동초제 판소리 보유자 방성춘 명창,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 유영에 명창 등이 우리 소리의 향연을 펼친다. 또한 광주시립합창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마법의 성’, 드라마 ‘응답하라1988’ OST 등도 연주되며 돌음무용단(대표 박선욱)과 한국춤연구소(대표 최지선)는 ‘신-풀이’와 ‘소리-풀이’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하맑음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남성퓨전국악팀 ‘화음’의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돼 있다. 이날 방송은 2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광주 주파수 FM 99.3MHz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당더콩 플레이어’를 내려 받아 시청할 수 있다. 062-670-746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가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광주 고싸움 놀이.

재즈·영화OST·뮤페라·뮤지컬·국악...다섯개 무대 가을감성 자극

16일까지 ‘ACC 아트 트레일러’
내일 22명 빅밴드 영화음악 들려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가 오는 16일까지 야와 문화예술 행사인 ‘ACC 아트 트레일러’를 ACC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 ‘ACC 아트 트레일러’는 장르별 전문가들의 해설과 재즈, 영화OST, 뮤페라, 뮤지컬, 국악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영화 OST 트레일러에서는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작가 배순탁과 한국경제TV 박세정 아나운서의 영화음악 설명과 함께 22명의 재즈 빅밴드로 이루어진 ‘더 재즈 앰배서더스 오케스트라’가 스케일이 큰 영화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14일에 진행되는 뮤페라 트레일러는 뮤지컬과 오페라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공연이다. 이 공연에서는 두 팀의 남성 싱어들이 하모니 대결을 벌이는데, 관객들이 투표를 통해 우승팀을 선발하는 등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15일에는 글로벌 팝 소프라노 최주희가 출연하는 뮤지컬 트레일러가 열린다. ‘여자의 일생동안의 사랑 (첫사랑의 설레임, 짝사랑, 결혼, 이별의 아픔 등)’이라는 주제의 토크와 15개의 대표 뮤지컬 갈라



‘더 재즈 앰배서더스 오케스트라’

콘서트로 진행된다. 끝으로 16일에 열리는 국악 트레일러는 대금연주자 김상연씨의 해설에 맞춰 실력과 국악 연주단체인 ‘금만고’의 ‘힐링’을 주제로 한 공연으로 진행돼, 국악기와 건반, 일렉기타의 콜라보 연주 등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ACC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인 축제기획자 과정을 수료한 청년문화기획자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오픈 트레일러’도 펼쳐진다. 10일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사랑’을 주제로 한 공연과 관객들의 사연으로 만들어 가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원보틀’

광주정보문화사업진흥원의 인큐베이팅 뮤지션인 ‘그란디’, ‘원보틀’의 로맨틱한 공연과 사전에 선정된 관객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술쇼, 비눗방울쇼, 캐리커처 그려주기, 크리스마스에 배달되는 엽서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이밖에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푸드존과 포토존 등의 부대행사가 준비됐다. ‘ACC 아트 트레일러’ 행사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02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시와 영상으로 풀어낸 전쟁·학살·이주의 역사

이매리 개인전 ‘Poetry Delivery’...19일까지 하정웅미술관



‘Poetry Delivery 2017-02’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93은 이매리 작가의 텃자리이자 유년의 기억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여순 사건, 6·25 등 아픈 역사의 바위에 휘말려 조부모 등 소중한 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한 곳이기도 하다. 2012년 월남사지 삼층석탑(보물 제298호) 추정 탑지 발굴조사*가 진행된 곳은 바로 지척이다. 발굴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월남사지를 사진과 영상을 기록해 온 작가는 ‘Poetry Delivery 2017 (시배달 2017)’를 통해 개인의 기억과 함께 전쟁, 학살, 죽음, 이주의 역사를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와 인터뷰로 함께 풀어낸다. ‘2017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다. 메인 전시실에 들어서면 3개의 비디오 채널과 함께 나뉘어지 더미가 눈에 띈다. 500년된 월남리 동백나무가 고사돼 발굴터에 나뉘고 있던 것들이다. 3개의 비디오는 동시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자 문명의 이면을 탐구하는 발굴 현장의 모습과 고즈넉한 돌담길, 논과 밭 등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월남마을의 풍경이

흘러나온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동티모르 등 전쟁의 역사를 안고 있는 지역 출신 인물들이 월남사지 터에서 ‘분쟁과 전쟁의 역사’를 들려준다. 2전시실의 2채널 비디오 작품도 흥미롭다. 영상 속 등장인물들은 각 나라의 민족시를 낭송한다. 강진과 광주, 뉴욕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다. 한쪽에선 강진부터 판문점까지 이르는 길과 함께 방곡, 베니스 등 작가가 방문했던 공간들을 끼워넣은 영상을 만날 수 있다. 과거로 개인의 ‘기원’을 찾아가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영상 속 인물과 풍경은 뒷걸음친다. 작가는 월남사지 발굴을 진행했던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미술관이 자리한 상록공원에서 발굴 현장을 재현, 영상 작품 ‘지층의 시간’을 완성했다. ‘땅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싶어 서다. 관람이 끝나면 밖으로 나와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설치된 ‘지층의 시간’을 둘러볼 일이다. 유리를 덮어 그대로 재현해 놓은 현장엔 돌무더기와 지층의 단면이 보인다. 낙엽들이 쌓여 있어 시간의 흐름이 더 절실히 느껴진다. 문의 063-613-71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학과 함께하는 가곡여행

내일 광주아트홀

‘인문학과 함께하는 가곡여행’이 오는 11일 오후 3시·5시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인문학과 함께하는 가곡여행은 특성화 극장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기획됐다. 공연은 사랑, 그리움, 추억, 행복에 관련된 인문학 강연 후 가곡을 들려줌으로써 가곡 속의 시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테너 김용덕이 ‘그리움’, ‘눈’을 들려줄 예정이며 소프라노 윤희정(동신대 외래교수)과 ‘제비꽃’을, 테너 이원용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 맘의 강물’ 등을 선사한다. 이날 공연에는 총감독 최덕식(빛소리오페라단장), 연출 및 해설 박미애(광주대교수), 피아노 천현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소프라노



테너 김용덕 소프라노 장희정

유형민, 소프라노 장희정(동신대 외래교수), 소프라노 윤희정(광주대 겸임교수), 테너 이원용(C.A.M소속), 테너 장호영(꿈의공간 대표), 테너 김용덕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27-744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가행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